

<성경칼럼 요한복음 일곱번째 : 오병이어의 기적의 실제 의미>

복음서에는 대략 35개 정도의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기록한다. 그중에서 모든 복음서가 유일하게 기록한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이다.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 기적의 사건으로 볼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은 대중 앞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매우 중요 했던 것이 분명하다. 사실 '예수님의 신성' 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적게 기록한 것은 참 아이러니컬하다. 그렇지 않은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신성을 상세히 밝히려면 복음서 전체를 기적으로 채워도 모자라지 않았을까? 신학교에 들어 가서 처음 요한복음을 읽을때 난 이 의문을 가슴에 품고 읽어 나갔다. 그러다 요한은 21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 의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밝혀 주고 끝을 맺는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했다. (요한 21:24) 난 사도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자들이 무슨 생각을하며 읽는지를 알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을 그때 깨달았다. 적어도 하나님을 증거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기준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글을 쓸줄 알아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배운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왜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쉽게 증명 할 수 있는 기적의 사건은 왜 가장 적게 기록 했을까? (8개 정도 기록) 그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예수님의 신성은 기적을 통해서 입증 되는 것이 아님을 요한은 알았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님의 기적을 낱낱이 기록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말해 역사의 기록 밖에는 되지 않는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볼수록 더 신기한 기적을 바라는 모습을

보았다. (사실 기독교의 은혜에 중독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 그 뿐만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허왕된 세상에대한 꿈들을 꾸기 시작했다. 요한 이런 예수님의 기적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허왕된 것이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타난 군중들의 태도를 통해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느니라’ (요한 6:15)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은 기적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을 했지 군중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못했다. 이것이 요한과 다른 복음서의 차이이다. 요한은 사람들의 영혼 속을 뚫어 본 사도 였다. 그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영혼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고, 기독교 저술가였고, 위대한 예언가였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은 복음서의 핵심이 아니라 ‘복음의 악세사리’ 일 뿐이다. 종종 사람들은 이런 기적에 매혹되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 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 할수 있는 것일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요한은 사람들이 가장 받아 들이기 힘든 말씀을 기록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 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 할 수 없다’ 하셨다. (요한 6:53-54) 이런 말씀을 듣고도 마음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았는가?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요한 6: 65)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고 요한은 기록을 했다. (요한 6: 66) 이 말씀이 오병이어에 대한 진정한 의미이다. 그들은 오천명을 물고기 두마리와 보리 떡 다섯개로 먹이고 열두 광주리를 남긴 기적의 사건을 두 눈으로 보고도 왜 떠났을까? 그리고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왜 떠나지 않았을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께

서 베드로에게 묻자 베드로가 대답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요한 6:67-69)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강조하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적게 기록한 이유를 깨닫게 된다.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낱낱이 기록해도 이 세상어디에도 저장 할수 없을 정도의 기적들로는 증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복음의 악세사리’ 일 뿐이다.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들은 모두가 세상의 마음으로 귀로 들으면 다 정신 나간 소리다. 그러나 그 말씀의 소리가 들리리 때는 우리의 마음과 귀는 이미 세상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 소리가 들릴때 우리 마음과 귀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한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다.